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2월 26일
제1937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사순 제1주일 (가해)

제 1 독 서 창세 2,7-9; 3,1-7 |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 답 송 시편 51(50)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독 서 로마 5,12-19 <또는 로마 5,12.17-19> |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마태 4,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복음 묵상

해마다 사순 첫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겪으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1독서의 아담과 달리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신 새 아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새 아담이실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살기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분께서는 온 삶을 하느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적어도 세 번 유혹을 받았습니다(탈출 16장: 17장: 32장).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901번 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빵을 내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곧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날마다 주어지는 하느님의 섭리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쌓아 놓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번째 유혹은 우리가 하느님을 두고 겪는 가장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하느님께서 지켜 주실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체된다고 여길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응답하시어 기적을 보여 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요구대로 바꾸어 기적을 행해 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빛과 희망을 주시기를 청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에 대한 옳은 믿음으로 언제나 악마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군림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거짓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느님을 닮을 것인가 악마를 닮을 것인가? <정용진 요셉 신부>

“범속과 허영을 멀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됩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 -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사순시기 담화에서 구원의 신비를 심화하고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초대했다. 아울러 사순시기 여정과 시노달리타스 여정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교회인 우리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새로움에 열린 마음으로 실현해야 할 여정이다.

“일상의 어려움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뤄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외떨어진 높은 곳으로

교황은 타볼 산의 거룩한 변모의 복음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담화를 이어갔다.

“이 전례 시기 동안에 주님께서는 외딴곳으로 우리를 함께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소임들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 것을 요구하며 흔히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게 할지라도, 사순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자기 수련으로서 수덕(asceticism)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은총이 동반하는 이 사순시기의 수덕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저항을 극복하자고 초대했다. 이를 위해 “범속과 허영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외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오름의 여정이 “등산을 하는 것처럼 노력과 희생과 집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교황은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따른다”고 강조했다. 예수님께서 타볼 산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다. 세 명의 제자는 정상에 올랐을 때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었다. “그 어떤 힘겨운 등산 중이라도 우리는 그 길만을 올곧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 웅장함으로 보답해 줍니다.” 교황은 시노드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종종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틀림없이 멋지고도 놀라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결실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

교황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두 가지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 듣기”와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를 제안했다. 교황은 교회가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에 늘 참례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형제자매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교황은 이러한 상호 경청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하느님께서 강력한 친교 체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평지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체험한 은총으로 우리가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길 바랍니다.”

1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2차 헌금

-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모금은 알려진 교구에서 종합하여 지원합니다.

2 2023년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 2023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85,000 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책정금액(\$)	약정세대	약정금액	비고
185,000	80	\$38,780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ia>

3 2023년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26일(일) 10시 미사 중
- 축하식 : 2월 2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A-1,2)

4 2월 26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회의 / 레지오 간부회의

5 병자 영성체

- 일시 : 3월 3일(금)
- 신청 : 정문기 월리암 (703) 598-3316
- 병자 영성체는 가족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3월 4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세계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7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3월 5일(일) 오전 11:30 (A-3,4)

8 유아세례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 학생 견진 성사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등록기간 및 장소 : 2월 26일(일)까지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10 성령기도회

- 매주 화요일(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에 모임이 있습니다.

11 하상 성인학교 2023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4일(화) - 6월 16일(금)
- 등록 : 2월 26일(일), 3월 5일(일), 3월 12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703) 217-2775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성체 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2월 19일(연중 제7주일)

봉헌금	\$ 6,437.00
교무금	\$ 6,520.00
교무금(신용카드)	\$ 5,220.00
감사 헌금	\$ 2,880.00
2차 헌금	\$ 2,616.00
온라인 봉헌	\$ 3,930.00
합계	\$ 26,36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2일(목) 오후 5:00 - 6:00
3월 3일(금) 저녁 8:00 - 9:00
3월 5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삶의 목적 치유하기' - 김인호 루카 신부

사순 감사송 5

'주님께서 받으신 유혹'(사순 제1주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 시기 재계의 기쁨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